

금시장 개장 첫날... 장외보다 가격 높아

국제시세보다 g당 900원 높은 4만6950원에 마감

거래실적 성공적... 농특세 폐지 등 규제 완화 필요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이 24일 개장한 가운데 첫날 거래된 금값이 장외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다. 거래실적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지만, 농특세 폐지와 수수료 인하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 개장 첫날, 상장된 금은 국제 금시세보다 g당 약 900원 높은 4만6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 때 4만7400원까지 올랐고 최저가는 4만6730원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5978g

으로 총 거래대금은 2억8075만5190원으로 집계됐다. 첫날 거래가는 장외시장은 물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상대인 은행의 골드뱅크 매수가격 4만6515원과 비교해도 비싼 편이다.

우정선 한국귀금속거래소 대표이사는 "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한 돈당 50~100원만 가격이 차이 나도록 큰 것으로 본다"면서 "KRX금시장의 금 가격은 거의 일반인 소매가격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출발은 순조로웠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금 시장운영팀은 예상보다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비중은 실물사업자와 개인이 각각 58.12%와 41.87%를 차지했다. 실물사업자가 주로 매도 호가를 낸 만큼 40%이상의 개인 참여비중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1g 단위로 거래 체계가 많이 이뤄지면서 개인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기존의 금 선물이나 미니 금 선물을 거래하지 않은 신규 참여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광주 금남로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감안할 때 첫날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안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값이 장외시장보다 높게 형성된 것과 관련 수수료 개선 및 농특세 폐지 등 거래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금 수입업체 한 곳의 하루 거래량이 통상 30~40kg인 만큼 거래량이 최소 10kg는 넘어야 금 거래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KRX 금시장 개장이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 음성적 거래를 단절하고 귀금속 산업의 대형화 고급화를 선도하는데 있는 만큼 소규모의 금 현물이 유통되는 동네 금은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일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오른쪽)이 북구 다문화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년예술가 창의활동 길 터 달라”

문화융성위 광주직담회... 지역문화계 규제 완화 건의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려 해도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력증명이나 각종 증빙 서류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예술가들에겐 이런 증명이 없으니깐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가 24일 오전 광주문화재단에서 개최한 '광주 문화현장 좌담회'에서는 최근 국정의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최규철 광주예총 회장,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등은 예술공연장 확충,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유연서 컬처네트워크 대표는 예술 공공기관의 규제 관행을 꼬집었다. 그는 “신인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뚜렷한 경력 없는 실정임에도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경력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청년예술가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라며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이 법에 실질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확실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는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는 도서지역 문화예술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일회적으로 방문하는 예술단 공연보다는 도서지역 주민, 어린이들이 문화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맞물려 광주지역에 장르별 전문예술 공연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윤모 광주시립극단장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낙후돼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복합예술공연 공간(아시아예술극장)이 있을 뿐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문화전당 주변에 연극·오페라·연극·무용 등 장르별 전문공연장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는 “대형공연 기획사들이 열악한 공연시설 때문에 광주를 찾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최규철 광주예총회장은 “문화예술정책이 중앙에 편중되다 보니 지역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빈사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의 확고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은 “초중고 예술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과과정에 예술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 문화공간 확충의 문제는 광주지역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난무하는 시·군 힐링·에코 사업 제동

전남도 투융자위 24개 사업 중 절반 이상 불가 결정

#곡성군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90억원, 군비 6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투입해 국제 힐링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1만5000㎡ 면적에 세계 장미테마정원, 친환경테마속박단지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곡성군의 계획에 대해 전남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시설 운영방법을 고려한 추정손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재검토를 결정했다.

#순천시시는 2017년까지 시비 25억원, 국비 25억원 등 50억원으로 용계산 내 200ha 면적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심사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 시·군들이 여전히 '큰 손' 행세를 하고 있다.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손익 분석이나 관련 법규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시·군비 투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규 사업의 대부분이 힐링, 치유, 생태 등을 주제로 하고 있어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지난 20일 전남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시·군이 제출한 24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반려법규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10건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4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1274억원으로, 그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451억원이 시·군의 자부담이었다. 그만큼 시·군의 부담이 크지만, 부담만큼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전체 안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선 순천시시는 시비 39억2000만원 등 9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연생태교육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심의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국제습지센터, 자연생태관 등 기존시설 활용 또는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과 사업의 주된 기능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화순군 역시 군비 46억원으로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했으나 사업 위치, 세부시설 규모, 시설관리 및 운영 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재검토가 결정됐다.

적정 관정을 받은 것은 축제 등 기존사업이나 폐수처리장·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비껴가지 못했다.

한편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중인 참조기 종 보전 시설은 적정 관정을 받았으며,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완도군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역시 생산자 이익증대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충남 천안·부여서 AI 감염 개 12마리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농가에서 기르던 개·돼지의 AI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충남 천안과 부여의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개 12마리에서 AI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항체가 확인된 개들은 AI 증상 없이 항체만 검출된 것으로 이는 바이러스에

노출됐지만, 질병이 발생한 감염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AI 항체가 검출된 개는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개 1마리를 포함해 총 13마리로 늘었다.

2004년 태국에서 오리 폐사체를 먹은 개가 AI에 감염돼 사망한 적은 있지만,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가

증상을 보이지 않고 살아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46개 농가에서 기르던 개·돼지의 시료를 분석 중이며, 현재 28건의 검사를 완료하고, 18건은 검사 중이다.

주이석 동물질병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개·돼지의 감염여부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AI

에 감염된 개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 개들이 AI에 감염돼 폐사한 닭·오리의 사체를 먹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남 부여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폐사한 닭을 사육 중인 개의 먹이로 준 정황도 포착됐다.

방역당국은 AI 바이러스가 체내의 어느 부분까지 침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I에 감염된 개 13마리 중 한 마리를 해부해 조직 검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해외여행 면세 한도 18년만에 상향 검토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려 노인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루코엔(N)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엔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 1899-3975 H.P 010-3598-7080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